

## 허삼영 감독 "오승환, 복귀 직후에는 편안한 상황에"

등록 2020.06.07 15:56:12



【대구=뉴스시스】우종록 기자 = 삼성라이온즈로 복귀한 오승환이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리그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5회 말에 끝난 뒤 21번이 새겨진 삼성 유니폼을 입고 팬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2019.08.10.wjr@newsis.com

[인천=뉴스시스] 김희준 기자 = KBO리그 복귀를 눈앞에 둔 오승환(38)이 첫 등판부터 세이브 상황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삼영 삼성 감독은 7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오승환을 9일 곧바로 1군 엔트리에 등록할 것"이라며 "키움 히어로즈와의 3연전에서는 편안한 상황에서 던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도박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징계를 받은 오승환은 이날 경기를 끝으로 72경기 출전 금지 징계가 만료돼 9일부터 KBO리그 복귀가 가능하다. 허 감독은 곧바로 1군에 등록시키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허 감독은 "오승환이 좋은 선수지만,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한다"며 "실전 감각을 완전히 되찾으면 마무리 투수로 투입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편안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말에 허 감독은 "상황을 봐야하지 않겠나. 9회가 아니라 중간에 등판할 수도 있다"며 "첫 등판부터 세이브 상황에 투입할지는 생각해보겠다.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을 때 등판하는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전날 인천 SK전에서 타구에 맞은 좌완 최채홍은 부상자 명단에 오를 전망이다.

허 감독은 "최채홍의 상태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는데, 선발 로테이션에 따라 다음 경기에 등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일단 내일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부상자 명단에 올라야 할 것 같다. 최근 2경기에서 처지는 느낌이 있어서 쉬어갈 필요도 있다"며 "대체 선발은 퓨처스(2군)리그에서 뛰는 선수 중 한 명이 맡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